

Reliance-Gail, 석유화학 쟁탈전

Reliance, Nocil 및 IPCL 플랜트 재가동 ... Gail은 Haldia 인수 추진

Reliance Industries가 인디아 석유화학 시장 장악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Gas Authority of India도 석유화학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.

Reliance는 2004년 초 인수한 National Organic Chemical Industries의 인디아 Thane 소재 에틸렌(Ethylene) 콤플렉스를 8-9월 재가동할 방침이다.

Nocil은 에틸렌 7만5000톤 크래커를 비롯해 HDPE(High-Density Polyethylene) 6만톤, EG(Ethylene Glycol) 2만5000톤 및 Oxo-Alcohol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. 에틸렌 크래커는 8만5000톤으로 증설이 가능하다.

Reliance는 HDPE 플랜트를 Ethylene-Vinyl Acetate Copolymer 3만톤 및 Ultra-High Molecular Weight PE 1만톤 플랜트로 전환할 계획이다.

Reliance는 최근 2002년 경영권을 인수한 Baroda 소재 Indian Petrochemicals(IPCL)의 에틸렌 13만톤 크래커의 재가동에 들어갔다.

Gail도 최근 Haldia Petrochemicals의 지분 10%를 매입을 추진하면서 경영권 장악에 나서고 있다. Haldia는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2004년 말 Bombay 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.

Haldia는 West Bengal 지방정부가 지분 중 43%, Chartterji Group이 43%, 그리고 Tata Group이 14%를 소유하고 있다.

Haldia는 에틸렌 크래커 생산능력을 61만톤으로 9만톤 증설할 예정이며 PP(Polypropylene) 25만톤 및 PE 52만톤 플랜트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.

현재 가동률이 110%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 7-8월까지 50억Rs를 투입해 증설을 완료할 방침이다.

Haldia는 Cochin에 천연가스 베이스 에틸렌 30만-40만톤 크래커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.

한편, 인디아에서는 Indian oil이 ABB Lummus Global 기술을 도입해 Baroda에 나프타 베이스 에틸렌 80만톤 크래커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, Oil & Natural Gas도 Dahej에서 에틸렌 크래커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8/09>